

해외여행 클리닉 운영의 노하우

김진리
H플러스양지병원

연수강좌

우리 나라에서 "해외 여행 클리닉"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"travel clinic", "travel medicine clinic", "travelers' clinic" 등 표현방법이 다양하고 기준이 없다. 그리고 이 단어들을 사용할 때 어느 학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본인 진료실에 간판을 달 수 있게 되어 있다. 또한 이 단어들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 정해진 표현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.

한국에서의 "해외 여행 클리닉"의 대부분은 환자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다른 진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이나 필요 시 약 처방을 받고 가는 정도로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. 이런 경우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단순 진료의 연장선이라는 인상을 주는 정도로 끝나기 쉽다.

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외 여행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,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지..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해외 여행 클리닉을 보다 특색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한다.

또한 이를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설명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학적 지식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다.